

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선형 유도 전동기의 벡터제어 특성해석

°김대경, 우경일, 권병일
한양대학교 대학원

Characteristic Analysis of Vector Controlled Linear Induction Motor Considering Static and Dynamic End Effect

°Kim Dae-Kyong, Woo Kyung-Il, Kwon Byung-Il
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.

Abstract - Linear induction motor(LIM) have static and dynamic end effects due to its finite core length, so that per-phase impedances are asymmetric and the air gap flux distribution is distorted. So, this paper propose the d-q axis equivalent circuit and vector control method considering both static and dynamic end effects of the LIM. This vector control method consists of the slip frequency control, the time-invariant control and decoupling control. As a result, it is shown that the results of equivalent circuit method have a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finite element method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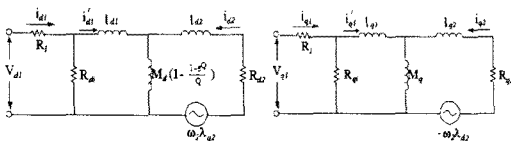
1. 서 론

선형유도전동기(Linear Induction Motor : LIM)는 극 대칭이 아니어서 3상 임피던스의 불균일성으로 일어나는 정적 단부효과와 유한 길이의 1차축과 무한 길이의 2차축의 상대 운동으로 발생하는 동적 단부효과 때문에 정확한 d-q축 등가회로 모델링과 벡터제어를 하기 힘들다.

LIM의 특성해석으로 회전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d-q 등가회로법과 각극당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는 d-q 등가회로법[1]과 Sugimoto는 구속 시험 및 등가 무부하 시험에 의해 구한 비대칭 상수를 가지는 d-q 등가회로가 발표하였고[2], 이를 이용하여 정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벡터제어가 발표되었지만, 동적 단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[3]. Duncan은 RIM의 등가회로를 변경하여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LIM의 한 상당 등가회로를 발표하였다[4]. 그리고, 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LIM의 d-q 등가회로가 발표되었다[5]. 그러나 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벡터 제어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.

본 논문에서는 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LIM의 벡터 제어를 위한 d-q축 등가회로를 제시하고, 전압방정식을 구성하여 LIM의 간접벡터제어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. 그리고, 기기의 형상을 고려할수 있는 유한요소법(Finite Element Method : FEM)을 이용한 동특성해석과 비교하여 제시한 LIM의 d-q 등가회로와 벡터 제어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.

2. 단부효과를 고려한 LIM의 벡터제어



(a) d-axis (b) q-axis
그림 1 제안된 LIM의 d-q축 등가회로

그림 1은 제안된 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d-q축 LIM의 등가회로이다. 기존의 정적 단부효과를 등가회로[3]에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속도항이 고려된 일반화한 시간 스케일에서의 모터 길이(Q)를 d축에 적용하였다.

$$Q = T_v / T_2 = DR_d / (M_d + L_d)v_2 \quad (1)$$

여기서, $T_v = D/v_2$, $T_2 = (M_d + L_d)/R_d$, D는 유효모터길이이다.

LIM의 도출한 벡터제어 방식은 회전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는 회전 좌표계 상의 이론을 적용하였지만, LIM의 정적 단

부 효과와 동적 단부 효과 때문에 회전좌표축($\gamma - \delta$ 축)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서로 상쇄되는 항이 없기 때문에, 다소 복잡하게 표현된다. 회전좌표축에서 상태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식(2)와 같다.

$$P \begin{bmatrix} i_{\gamma 1} \\ i_{\delta 1} \\ \lambda_{\gamma 2} \\ \lambda_{\delta 2} \end{bmatrix}^T = A \begin{bmatrix} i_{\gamma 1} \\ i_{\delta 1} \\ \lambda_{\gamma 2} \\ \lambda_{\delta 2} \end{bmatrix}^T + [B \ 0 \ 0]^T [v_{\gamma 1} \ v_{\delta 1}]^T \quad (2)$$

$$A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& A_{13} & A_{14} \\ A_{21} & A_{22} & A_{23} & A_{24} \\ A_{31} & A_{32} & A_{33} & A_{34} \\ A_{41} & A_{42} & A_{43} & A_{44} \end{bmatrix} \quad (3)$$

$$B = \begin{bmatrix} \frac{\bar{a}_1 + \tilde{a}_1 \cos 2\theta}{R_1} & \frac{-\tilde{a}_1 \sin 2\theta}{R_1} \\ \frac{-\tilde{a}_1 \sin 2\theta}{R_1} & \frac{\bar{a}_1 + \tilde{a}_1 \cos 2\theta}{R_1} \end{bmatrix}, \quad 0 = [0 \ 0] \quad (4)$$

$$\begin{bmatrix} \lambda_{\gamma 2} \\ \lambda_{\delta 2}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\bar{M} + \bar{M} \cos 2\theta & -\bar{M} \sin 2\theta \\ -\bar{M} \sin 2\theta & \bar{M} - \bar{M} \cos 2\theta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i_{\gamma 1} \\ i_{\delta 1} \end{bmatrix} + \begin{bmatrix} \bar{L}_2 + \bar{L}_2 \cos 2\theta & -\bar{L}_2 \sin 2\theta \\ -\bar{L}_2 \sin 2\theta & \bar{L}_2 - \bar{L}_2 \cos 2\theta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i_{\gamma 2} \\ i_{\delta 2} \end{bmatrix} \quad (5)$$

여기서, 변환각 $\theta = \int \omega dt$ 이고, $\cos 2\theta$ 와 $\sin 2\theta$ 가 계수행렬의 각 요소 중에 포함된 것은 전기적 정수가 상 비대칭인 것에 의한 것이다. 그리고, 각 계수들은 부록에 나타내었다. 슬립 주파수 제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식(2)의 3행과 4행으로부터 $\lambda_{\delta 2} = 0$ 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수 있다.

$$\lambda_{\gamma 2} = \left[\frac{1}{(P + a_6 + \tilde{a}_6 \cos 2\theta)} \right] \times [(\tilde{a}_5 + \tilde{a}_5 \cos 2\theta) \cdot i_{\gamma 1} - \tilde{a}_5 \sin 2\theta \cdot i_{\delta 1}] \quad (6)$$

$$\omega_{se} = \omega - \omega_2 = \left[(\tilde{a}_5 - \tilde{a}_5 \cos 2\theta) \cdot i_{\delta 1} - \tilde{a}_5 \sin 2\theta \cdot i_{\gamma 1} \right] / \lambda_{\gamma 2} + \tilde{a}_6 \sin 2\theta \quad (7)$$

여기서, ω_{se} 는 슬립주파수, $\omega_2 = (\frac{\pi}{\tau}) \cdot v_2$ 이다. 그리고, 식(2)를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.

$$P \begin{bmatrix} i_{\gamma 1} \\ i_{\delta 1} \\ \lambda_{\gamma 2} \end{bmatrix}^T = A4 \begin{bmatrix} i_{\gamma 1} \\ i_{\delta 1} \\ \lambda_{\gamma 2} \end{bmatrix}^T + [B \ 0 \ 0]^T [v_{\gamma 1} \ v_{\delta 1}]^T \quad (8)$$

그리고, $i_{\gamma 1}$ 를 대신하여 자하분전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.

$$i_{\gamma 1} = (1 + \tilde{a}_5 \cos 2\theta / \bar{a}_5) \cdot i_{\gamma 1} - (\tilde{a}_5 \sin 2\theta / \bar{a}_5) \cdot i_{\delta 1} - (\tilde{a}_6 \cos 2\theta / \bar{a}_5) \lambda_{\gamma 2} \quad (9)$$

주력분전류 또한 식(5)를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.

$$i_{\gamma 1} = -\frac{1}{a_7} i_{\delta 2} = -\frac{\tilde{a}_7}{a_7} \sin 2\theta \cdot i_{\gamma 1} + (1 - \frac{\tilde{a}_7}{a_7} \cos 2\theta) \cdot i_{\delta 1} - \frac{\tilde{a}_8}{a_7} \sin 2\theta \lambda_{\gamma 2} \quad (10)$$

이 관계를 Matrix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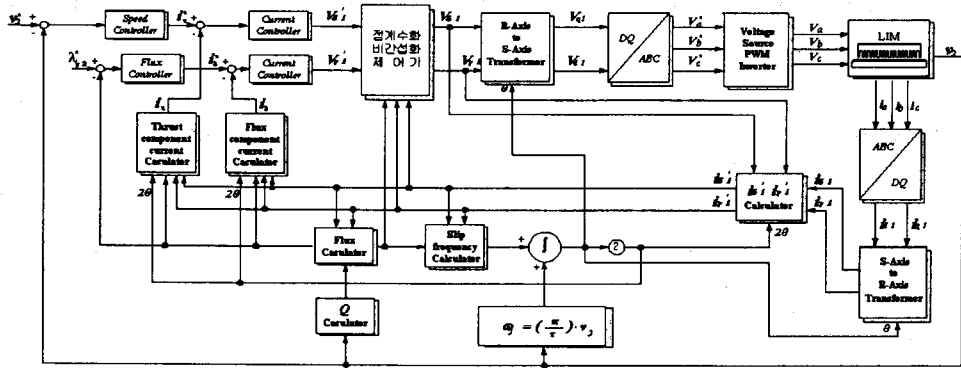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시스템 구성

$$[i_{\lambda} \ i_T \ \lambda_{r2}]^T = T [i_{r1} \ i_{r2} \ \lambda_{r2}]^T \quad (11)$$

$$T = \begin{bmatrix} 1 + \frac{\tilde{a}_5 \cos 2\theta}{a_5} & -\frac{\tilde{a}_5 \sin 2\theta}{a_5} & -\frac{\tilde{a}_5 \sin 2\theta}{a_5} \\ -\frac{\tilde{a}_7 \sin 2\theta}{a_7} & 1 + \frac{\tilde{a}_7 \cos 2\theta}{a_7} & \frac{\tilde{a}_8 \sin 2\theta}{a_7} \\ 0 & 0 & 1 \end{bmatrix} \quad (12)$$

식(8)의 제어를 간단화하기 위해 식(11)을 이용해서 정계수화 및 비간섭화 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.

$$P [i_{\lambda} \ i_T \ \lambda_{r2}]^T = D [i_{r1} \ i_{r2} \ \lambda_{r2}]^T + [E \ 0]^T [v_{r1} \ v_{r2}]^T \quad (13)$$

$$D = \begin{bmatrix} -(\overline{a_1} + \overline{a_2}) & 0 & 0 \\ 0 & -(\overline{a_1} + \overline{a_2}) & 0 \\ \frac{\overline{a_5}}{a_5} & 0 & -\overline{a_6} \end{bmatrix} \quad (14)$$

$$E = \begin{bmatrix} \frac{\overline{a_1} + \tilde{a}_1 \tilde{a}_5 / \overline{a_5}}{R_s} & 0 \\ 0 & \frac{\overline{a_1} + \tilde{a}_1 \tilde{a}_5 / \overline{a_5}}{R_s} \end{bmatrix} \quad (15)$$

여기서, v_{r1} , v_{r2} 는 정계수화 및 비간섭화를 하기 전의 γ - δ 축 1차 전압이며, 정계수화 및 비간섭화에 인한 전압은 다음과 같다.

$$[v_{r1} \ v_{r2}]^T = [B^{-1} \ 0^T] \cdot ((-T \cdot A4 - PT + DT) \cdot [i_{r1} \ i_{r2} \ \lambda_{r2}]^T + [E \ 0]^T \cdot [v_{r1} \ v_{r2}]^T) \quad (16)$$

그리고, LIM에 대한 추력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.

$$F = \frac{3}{2} \frac{\pi}{\tau} \overline{a_7} \lambda_{r2} i_T \quad (17)$$

그리고,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.

$$v_2 = \int \frac{F - F_l}{m} dt \quad (18)$$

여기서, v_2 : 속도, F_l : 부하, m : 질량이다.

그림 2는 LIM의 벡터제어를 위한 시스템구성이며, 속도제어기, 자속제어기 및 전류제어기는 비례적분제어기를 사용하였다.

3.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LIM의 벡터제어 특성해석

해석 영역을 2차원 유한요소법으로 풀기 위해 Maxwell 전자계 방정식으로부터 이동좌표계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배방정식을 구하면 식(19)와 같다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x} \frac{1}{\mu} \left(\frac{\partial A_z}{\partial x} \right) + \frac{\partial}{\partial y} \frac{1}{\mu} \left(\frac{\partial A_z}{\partial y} \right) = -J_z + \sigma \frac{dA_z}{dt} \quad (19)$$

단, A_z : 자기벡터 포텐셜의 z축 성분

J_z : 슬롯에 흐르는 코일의 전류밀도

σ : 2차측 도체판의 도전율, μ : 재료의 투자율

또한 전압이 1차측의 여자코일에 인가되었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미지수이며 이때의 회로방정식은 식(20)와 같다.

$$\{V\} = [R]\{I\} + [L_0] \frac{d}{dt} \{I\} + \{E\} \quad (20)$$

여기서, $\{V\}$: 각 상에 인가되는 전압

$\{I\}$: 각 상에 흐르는 전류

$[R]$: 각 상의 코일 및 외부회로 저항

$[L_0]$: 각 상의 코일단의 누설 인덕턴스

$\{E\}$: 각 상의 유기전압

식(19)과 (20)를 결합하여 Galerkin 유한요소법으로 정리하고 시간미분항에 대해서는 후퇴차분법으로 정리하면 식(21)와 같이 된다.

$$\left\{ \left[\frac{1}{\mu} S \quad -N \right] + \frac{1}{\Delta t} \left[\begin{array}{cc} T & 0 \\ L_{eff} N^T & L_0 \end{array} \right] \right\} \left\{ \begin{array}{c} A \\ I \end{array} \right\} t = \frac{1}{\Delta t} \left[\begin{array}{cc} T & 0 \\ L_{eff} N^T & L_0 \end{array} \right] \left\{ \begin{array}{c} A \\ I \end{array} \right\} t - \Delta t + \left\{ \begin{array}{c} 0 \\ V \end{array} \right\} t \quad (21)$$

여기서, T : 와전류와 관련된 계수 행렬

L_{eff} : z축 방향으로의 유효 직류유도

A : 자기 벡터 포텐셜, I : 출력 전류, V : 입력 전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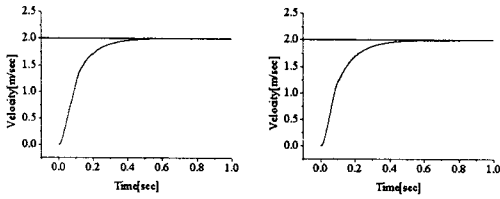
선형 유도 전동기의 동작특성은 식(21)를 풀어서 구한 자체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Maxwell용력으로 매순간마다 힘을 구하고 d-q 등가회로법과 마찬가지로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동자의 속도를 매 순간마다 구할 수 있다.

4.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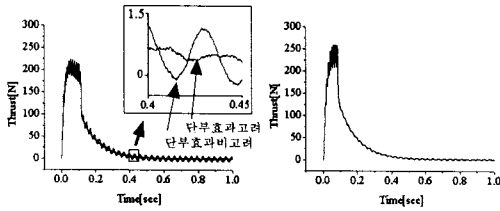
정적 및 단부효과를 고려한 LIM의 d-q축 등가회로와 벡터제어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기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과 비교하였다. 그림 3은 속도제어시 속도 응답 곡선을 나타내며, 기준 속도는 2.0[m/sec]로 하였다. 그림 3(a)는 등가회로법에 의해 나타난 속도 응답 파형이며 약 0.5초 후에 기준속도에 수렴하고, 그림 3(b)는 유한요소법에 의해 나타난 속도 응답 파형으로 약 0.57초 후에 기준속도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. 등가회로법이 유한요소법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.

그림 4는 속도 제어시 추력 응답 곡선을 나타낸다. 그림 4(a)는 등가회로법에 의한 LIM의 단부효과를 고려한 벡터제어와 고려하지 않은 벡터제어의 결과를 비교한 파형이다. 단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기준 속도에 수렴했을 때 추력이 맥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. 그러나, 단부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추력이 맥동없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. 그림 4(b)는 유한요소법의 파형 역시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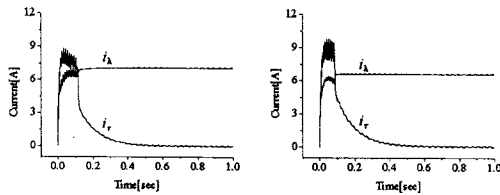
그림 5는 속도제어시 자속분 및 추력분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. 그림 6은 속도제어시 1차전류 파형을 나타낸다. 그림 6(a)는 등가회로법에 의한 속도제어시 1차전류 파형으로서, i_{y1} , i_{d1} 이 맥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것은 i_{y1} , i_{d1} 이 맥동하므로써 자속분 및 추력분 전류를 맥동없이 양호하게 제어하여 추력을 맥동없이 제어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림 6(b)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1차전류 파형을 나타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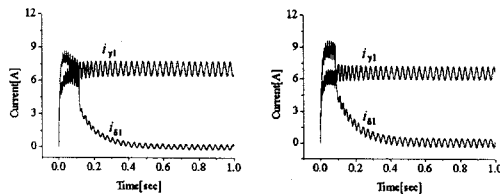
(a) 등가회로법 (b) 유한요소법
그림 3 속도제어시의 속도응답



(a) 등가회로법 (b) 유한요소법
그림 4 속도제어시 추력응답



(a) 등가회로법 (b) 유한요소법
그림 5 속도제어시 자속분 및 추력분 전류 응답



(a) 등가회로법 (b) 유한요소법
그림 6 속도제어시 1차전류 응답

5. 결 론

본 논문에서는 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선형 유도전동기의 벡터 제어를 위하여 단부효과를 고려한 d-q축 등가회로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벡터제어법을 도출하였다. 벡터 제어법은 $\gamma - \delta$ 축으로 표시된 삼비대칭과 속도 항을 고려했던 상태방정식으로부터 도출하였다. 이것은 1차전류 i_{y1} , i_{d1} 을 제어하여 추력을 맥동없이 양호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. 그

리고 기기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특성 해석과 비교함으로써 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선형 유도전동기의 d-q축 등가회로와 벡터제어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.

[참 고 문 헌]

- [1] T.A. Lipo, T.A. Nondahl, "Pole-by-Pole d-q model of a linear induction machine," IEEE Transactions on Power Apparatus and Systems, vol. PAS-98, No.2, March/April, 1979
- [2] H. Sugimoto, M. Tomoe "A method of calculating asymmetrical constants based on lock test for single-sided linear induction motor," T. IEE Japan, vol 113-D, pp.247-255, 1993.1.
- [3] H. Sugimoto, M. Tomoe "A Vector Control Method of a Linear Induction Motor with Asymmetrical Constants and its Performance Characteristics," T. IEE Japan, vol 114-D, pp.17-23, 1994.1.
- [4] J. Duncan, C. Eng., "Linear Induction Motor Equivalent Circuit Model," Proc. IEE, Vol. 130, Pt. B, No. 1, pp.51-57, 1983.
- [5] 김대경, 권병일, 우경일, "정적 및 동적 단부효과를 고려한 선형유도전동기의 특성 해석," 대한전기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(B), pp.981-983, 2000.

부 록

1차축저항(R_1): 4.2 [Ω]
 2차축 d,q축저항(R_{2d}, R_{2q}): 11.424, 12.822 [Ω]
 d,q축상호인덕턴스(M_d, M_q): 0.0633, 0.0568 [H]
 d,q축1차축,2차축 자기인덕턴스(L_{d1}, L_{d2}): 0.0978, 0.0637 [H]
 q,q축1차축,2차축 자기인덕턴스(L_{q1}, L_{q2}): 0.0867, 0.0602 [H]
 유효모터길이(D): 288.6 [mm]

$$\begin{aligned}
 A_{11} &= -(\tilde{a}_1 + \tilde{a}_2) - (\tilde{a}_1 + \tilde{a}_2)\cos 2\theta, & A_{12} &= \omega + (\tilde{a}_1 + \tilde{a}_2)\sin 2\theta \\
 A_{13} &= \tilde{a}_3 + \tilde{a}_3\cos 2\theta + \tilde{a}_2\tilde{a}_4\sin 2\theta, & A_{14} &= \omega_2(\tilde{a}_1 + \tilde{a}_4\cos 2\theta) - \tilde{a}_3\sin 2\theta \\
 A_{21} &= -\omega + (\tilde{a}_1 + \tilde{a}_2)\sin 2\theta, & A_{22} &= -(\tilde{a}_1 + \tilde{a}_2) - (\tilde{a}_1 + \tilde{a}_2)\cos 2\theta \\
 A_{23} &= -\omega_2(\tilde{a}_1 - \tilde{a}_4\cos 2\theta) - \tilde{a}_3\sin 2\theta, & A_{24} &= \tilde{a}_3 - \tilde{a}_3\cos 2\theta - \omega_2\tilde{a}_4\sin 2\theta \\
 A_{31} &= \tilde{a}_5 + \tilde{a}_5\cos 2\theta, & A_{32} &= -\tilde{a}_5\sin 2\theta \\
 A_{33} &= -\tilde{a}_5 - \tilde{a}_5\cos 2\theta, & A_{34} &= (\omega - \omega_2) + \tilde{a}_5\sin 2\theta \\
 A_{41} &= -\tilde{a}_5\sin 2\theta, & A_{42} &= \tilde{a}_5 - \tilde{a}_5\cos 2\theta \\
 A_{43} &= -(\omega - \omega_2) + \tilde{a}_5\sin 2\theta, & A_{44} &= -\tilde{a}_5 + \tilde{a}_5\cos 2\theta \\
 \bar{L}_2 &= \frac{1}{2}(L_{d2} + L_{q2}), & \tilde{L}_2 &= \frac{1}{2}(L_{d2} - L_{q2}), \\
 \bar{M} &= \frac{1}{2}(M_d(\frac{1-e^{-Q}}{Q}) + M_q), & \tilde{M} &= \frac{1}{2}(M_d(\frac{1-e^{-Q}}{Q}) - M_q), \\
 \sigma_d &= 1 - \frac{\{M_d(\frac{1-e^{-Q}}{Q})\}^2}{L_{d1}L_{d2}}, & \sigma_q &= 1 - \frac{M_q^2}{L_{q1}L_{q2}}, \\
 T_{d1} &= \frac{k_d L_{d1}}{R_1}, & T_{q1} &= \frac{k_q L_{q1}}{R_1}, & T_{d2} &= \frac{L_{d2}}{R_{d2}}, & T_{q2} &= \frac{L_{q2}}{R_{q2}} \\
 \bar{a}_1 &= \frac{1}{2}(\frac{1}{\sigma_d T_{d1}} + \frac{1}{\sigma_q T_{q1}}), & \tilde{a}_1 &= \frac{1}{2}(\frac{1}{\sigma_d T_{d1}} - \frac{1}{\sigma_q T_{q1}}) \\
 \bar{a}_2 &= \frac{1}{2}(\frac{\{M_d(\frac{1-e^{-Q}}{Q})\}^2}{\sigma_d T_{d1} L_{d1} L_{d2}} + \frac{M_q^2}{\sigma_q T_{q1} L_{q1} L_{q2}}) \\
 \tilde{a}_2 &= \frac{1}{2}(\frac{\{M_d(\frac{1-e^{-Q}}{Q})\}^2}{\sigma_d T_{d1} L_{d1} L_{d2}} - \frac{M_q^2}{\sigma_q T_{q1} L_{q1} L_{q2}}) \\
 \bar{a}_3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\sigma_d T_{d1} L_{d1} L_{d2}} + \frac{M_q}{\sigma_q T_{q1} L_{q1} L_{q2}}) \\
 \tilde{a}_3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\sigma_d T_{d1} L_{d1} L_{d2}} - \frac{M_q}{\sigma_q T_{q1} L_{q1} L_{q2}}) \\
 \bar{a}_4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\sigma_d L_{d1} L_{d2}} + \frac{M_q}{\sigma_q L_{q1} L_{q2}}), & \tilde{a}_4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\sigma_d L_{d1} L_{d2}} - \frac{M_q}{\sigma_q L_{q1} L_{q2}}) \\
 \bar{a}_5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T_{d2}} + \frac{M_q}{T_{q2}}), & \tilde{a}_5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T_{d2}} - \frac{M_q}{T_{q2}}) \\
 \bar{a}_6 &= \frac{1}{2}(\frac{1}{T_{d2}} + \frac{1}{T_{q2}}), & \tilde{a}_6 &= \frac{1}{2}(\frac{1}{T_{d2}} - \frac{1}{T_{q2}}) \\
 \bar{a}_7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L_{d2}} + \frac{M_q}{L_{q2}}), & \tilde{a}_7 &= \frac{1}{2}(\frac{M_d(\frac{1-e^{-Q}}{Q})}{L_{d2}} - \frac{M_q}{L_{q2}}) \\
 \bar{a}_8 &= \frac{1}{2}(\frac{1}{L_{d2}} + \frac{1}{L_{q2}})
 \end{aligned}$$